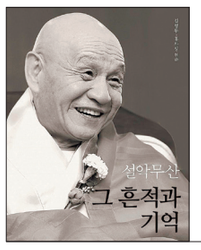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7~5/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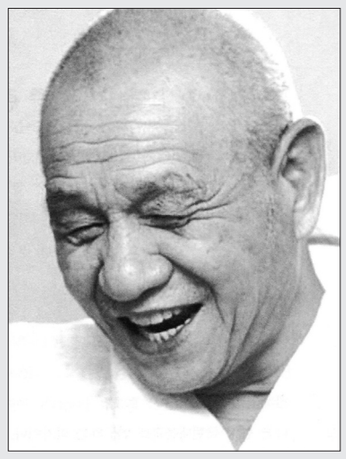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행복의 그릇을 채워주는 365일 마음공부	무명스님	쌤앤파커스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마하시 사야도의 담마짝까 법문(초전법륜경)	마하시 사야도/일창스님	불방일
3	나는 중이 아니야	진광스님	불교신문사	8	꽃에 향기를 더하다욱조 해동, 천로 이부 금강경 해설	원정스님/정안스님	조계종출판사
4	정선 디가 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9	눈물만 보태어도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보각스님	불광출판사
5	잔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덕현스님	법화	10	분양무덕선사어록	석영곡	민족사

마음속 큰 산 '키다리 스님'의 기억들



설악무산, 그 기억과 흔적

김병무, 홍사성 엮음/인북스 펴냄/1만 2천원



큰스승으로 기억한 48편 글 모아
신분 차별없이 다양한 사람 교유
한글 선시조 개척, 문학사 큰공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지난 5월 16일 강원도 설악산 신흥사에서는 지난해 입적한 신흥사 조실을 지낸 설악당 무산 스님의 1주기 추모 다례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평소 도반이었던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무산 스님 어딜 가셨어요. 잠시 돌아 앉아 하고픈 일 있어 적정 삼매에 드셨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셔서 곳 중생들 마정수기 하셨습니까. 도솔천 내원궁에서 목청껏 무생곡을 불렀습니까. (중략) 속히 대적 삼매에서 깨어나소서. 영남루에 봄바람 일어 천하가 태평합니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가슴에 무산 스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사무치게 해 주었다.

무산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가 배출한 큰 스승 가운데 한 분이다. 동진 출가해 조계종 선승들의 추대로 설악산 조실에 오른 불교계의 큰 산이었다. 특히 무산 스님은 신분이나 직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많은 이들과 만났다.

위로는 국가지도자부터 아래로는 시골 촌부에 이르기까지, 사상적으로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교유했다.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배웠으며, 시대와 고락을 함께길 주저하지 않았다. 시인이기도 했던 무산 스님은 한글 선시조를 개척해 현대한국문학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이 언행록에 필진으로 참여한 분들의 면면 역시, 스님의 교유 범위만큼이나 다양함을 자랑한다. 무산 스님과 수십 년 동안 설악산문서 함께 수행하며 교분을 나누었던 도반 스님들과 사형 사제, 불가의 후학들은 물론, 문단의 중진들과 정계 인사들,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스님을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

특히 무산 스님 입적 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의를 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글에서부터 스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이장의 회고담에 이르기까지 스님을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는 시대의 큰 스승으로 기억하는 48편의 글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무산 스님 1주기를 맞아 펴낸 이 책에 실린 회고담이 스님이 보여준 가풍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어쩌면 여러 사람이 각기 만져본 코끼리 다리에 대한 기억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책으로 엮는 것은 생전에 스님이 보여준 본지풍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아직 어리석은 후학들이 살아가는 데 지남으로 삼기 위해서다. 엮은이 김병무와 홍사성은 한때 절집에서 무산 스님과 사형 사제의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

"속가에 나와서도 불교출판과 언론 쪽에서 일한 덕분에 오래도록 곁에서 모실 수 있었다. 아직 물어보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갑자기 생사를 나누게 되자 그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겨우 정신을 수습해 생각해보니 옛사람을 본받아 언행록이라도 간행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할 일 같았다.

이에 부랴부랴 평소 가까웠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과 추억담을 수집해 한 권의 책으로 엮기로 했다"고 엮은이의 취지를 밝힌다.

이 책서 필자들은 해골 인형을 곁에 두고 본래면목을 상기하며 하심과 무욕의 삶을 살아온 수행자, 만해축전과 만해대상으로 현대의 한국인들에게 만해의 자유와 생명 사상을 새롭게 고취한 대사상가,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고 일깨우는 선승(禪僧)으로서 풍모를 보여온 스님과의 생전 일화들을 진솔히 소개한다. 한국 선시의 새로운 지평을 연 대시인이면서도 스스로 빛나기보다 남을 빛내주는 일로 평생을 헌신하고,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오현 스님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저마다의 기억 속에서 다양한 화법으로 독자들을 찾아간다.

조오현(曺五鉉)으로 알려진 설악당 무산 스님은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으며, 밀양 성천사로 동진출가, 인월화상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았다. 젊은 시절 금오산 토굴에서 6년 동안 고행했으며 설악산 신흥사에서 정호당 성준화상을 법사로 건당했다. 뒷날 신흥사 조실이 되어 설악산문을 재건했으며,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되었다. 만년에는 백담사 무문관에서 4년 동안 폐관정진하다 2018년 5월 26일(음력 4월 12일) 입적했다.

저술로는 〈벽암록 역해〉 〈무문관 역해〉 〈백유경 선해(禪解-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랴)〉 〈선문선답〉 등이 있다. 일찍이 시조시인으로 등단한 스님은 한글 선시조를 개척하여 현대한국문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시집으로 〈심우도〉 〈만악가타집(萬嶽伽陀集)〉 〈절간 이야기〉 〈아득한 성자〉 〈적멸을 위하여〉 등이 있다. 은관문화훈장,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으며 DMZ 평화대상, 조계종 포교대상, 남명문학상, 가람시조문학상, 정지용문학상, 공초문학상, 고산문학대상, 이승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글 "생전에도 생사 초탈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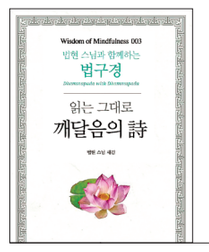
불가에서 '마지막 무애도인' 으로 존경받으셨던 신흥사와 백담사 조실 오현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한글 선시가 너무 좋아서 2016년 2월 4일 〈아득한 성자〉와 〈인천만 낙조〉라는 시 두 편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야 털어놓자면, 스님께선 서울 나들이 때 저를 한 번씩 불러 막걸릿잔을 건네주시기도 하고, 시자 몰래 슬쩍슬쩍 주머니에 용돈을 찔러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묵직한 '화두' 도 하나씩 주셨습니다.

언제 청와대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제는 제가 막걸리도 드리고 용돈도 한번 드려야지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스님께서 옛날 일을 잊지 않고 〈아득한 성자〉 시집을 인편에 보내오셨기에 아직 시간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스님의 입적 소식에 '아뿔싸!'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스님은 제가 만나 뵐 때마다 늘 막걸릿잔과 함께였는데, 그것도 그럴듯한 사발이 아니라 언제나 일회용 종이컵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생사일여, 생사를 초탈하셨던 분이셨으니 '허허' 하시며 훌훌 떠나셨을 스님께 막걸리 한 잔 올립니다.

진리의 말씀 쉽게 해석



법현 스님과 함께하는 법구경

법현 스님 지음/숨 펴냄/7,900원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시 423편을 담은 불교 경전 〈법구경〉은 본래 고대 인도어로 '담마빠다(Dhammapada)' 라는 제목으로 전해졌는데, '가르치는 말씀' 혹은 '진리의 말씀'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신자이거나 그저 참고삼아 부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이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경전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된 불교 서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역본이 출간됐는데, 한자는 물론 일본어, 영어, 독일어 번역본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책부터 인도 고어인 빠알리어를 직접 번역한 책도 나와 있다.

당연히 역자의 시각과 편의, 의도에 따라 직역과 의역이 혼재돼 있는데, 법현 스님은 가장 쉽게 풀어쓴 법구경을 나누고자 했다. 전문가의 시각이 담긴 난해한 풀이와 깊은 사유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불교신자와 이웃들이 누구나 쉽게 읽고 새길 수 있는 부처님의 시를 전하고 싶었다. 〈읽는 그대로 깨달음의 詩-법현 스님과 함께하는 법구경〉은 누구든지 한눈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쉬운 풀이와 해석을 담고 있다.

〈읽는 그대로 깨달음의 詩〉라는 제목에 '법현 스님과 함께하는 법구경(Dhammapada with Dhammupada)' 이라는 부제를 단 것은 역자인 법현 스님의 이름 법현(法顯)을 빠알리어로 '담마우빠다(dhammaupada)', 줄여서 '담무빠다(dhammupada)' 라 해서 '담무빠다와 함께하는 담마빠다' 라는 연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다.

이 책에 담겨 있는 부처님의 시 전체 423게송은 읽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네 묶음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 아라한의 길에서' 는 제1 쌍품서 제7 아라한의 품까지 99게송을 묶었다. '둘, 붓다가 되는 길에서' 는 제8 일천품에서 제15 행복품까지 109게송을 묶었다. '셋, 바르게 가는 길에서' 는 제16 아낌품에서 제21 이런저런품까지 97게송을 묶었다. '넷, 수행자의 길에서' 는 제22 지옥품에서 제26 바라문품까지 118게송을 묶었다. 순서대로 읽어도 좋고, 읽는 이가 읽고 싶은 부분부터 펼쳐 읽어도 그 안에서 마음을 물들이는

부처님 시 423게송 담아
총 네 묶음으로 나눠 구성

깨달음의 시가 다가올 것이다. 한편 이 책의 저자 법현 스님은 전남 화순 출생으로 중앙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서 석·박사를 수료했다. 서울 은평구 열린선원서 14년째 전법 중이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불교실 세계선원을 법호 스님과 함께 개원해 이끌고 있으며, 일본 나가노 금강사 주지를 맡아 재일교포와 일본인들에게 수행 불교의 참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 총무, 교무, 사회부장,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재임 시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바 있다. 저서로는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사람〉 〈그래도, 가끔〉 등이 있다. 법현은 법명, 무상은 법호, 담무빠다는 빠알리어 별명이다.

김주일 기자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